

다문화동화로서의 아시아 전래동화집 연구

오 정 미

인하대학교 연구교수

I. 들어가며

한국이 다문화사회인가에 대한 논란은 이제 필요 없다. 교육, 미디어, 정책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다문화’는 한국사회에서 중심 화두가 되었고, 다양한 국적의 이주민들은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이웃이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동화책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문화’를 전면에 내세운 ‘다문화동화’가 출판되기 시작하였고, 학계에서 다문화 동화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¹⁾

1) 다문화동화가 가진 문제점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시작되었고, 대표 연구로 류찬열과 김부경·원진숙의 연구가 있다. 류찬열, 「다문화동화의 현황과 전망」, 『어문논집』40, 중앙어문학회, 2009. 김부경·원진숙, 「다문화 동화의 내용 요소 분석: 인물, 갈등의 양상, 해결의 방식, 다수자의 편견을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8-2, 한국다문화교육학회, 2015. 이외에도 다문화동화가 가진 문제를 직접 비판한 연구는 아니지만, 내용 분석을 통해 문제를 제기한 연구로 이혜미 연구가 있다. 이혜미, 「다문화동화에 나타난 상호 이해의 양상」, 『글로벌교육연구』3-2, 글로벌교육연구학회, 2001. 그리고 본 연구와 궤적을 같이 하는(이하 같음) 다문화 동화에 대한 연구도 있다. 권혁래, 「다문화동화집 출간:이주민

그러나 다문화동화의 현주소는 애초에 기획했던 것과 달리 이주민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재생산한다는 비판에 놓여있다. 예를 들면, 따돌림당하는 다문화가정의 아이와 가난한 이주민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면서, 오히려 다문화가정과 이주민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 재생산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단지 서사의 문제라기보다 다문화동화에 대한 고착화된 개념에서 그 답을 찾고자 한다. 다문화동화가 무엇인지 그 정의와 범주를 비교적 최근에 정리한 김부경·원진숙과 권혁래의 연구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다문화 동화의 개념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다문화 동화란, 결혼이주자와 이주노동자, 탈북자와 그 가정이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과 우리 사회의 소수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그린 동화, 그들의 민족 집단과 출신 국가를 배경으로 그들의 문화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동화이다(김부경·원진숙 2015:73).

①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탈북민, 그리고 그 자녀들을 주인공으로 한 동화이다. ②이주민들이 한국으로 이주하고 정착한 과정을 그린 동화이다. ③한국 사회에서 이주민들이 소수자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그린 동화이다. ④이주민들의 모국문화가 드러나 있는 동화이다(권혁래 2018:40).

현재 다문화동화는 아시아계의 이주민 혹은 아시아계 이주민이 속한 가정의 갈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아시아계 이주민을 소수자로 형상화하는 창작동화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다문화동화의 고착화된 개념은 다문화동화를 매우 한정적인 소재와 주제 그리고 서사 속에 가두었고 결국 이주민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양산하는 데 일조했다.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지향하고자 했던 다문화동화의 본래 기획 목표를 상기해보면 다문화동화에 대한 새로운 개념 정립이 시급하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다문화동화에 대한 새로운 개념의 재정립을 모색하고자 위의 정리된 다문화동화 중에서도 이주민들의 모국문화가 드러난 다

문화동화에 집중하고자 한다.

한국의 다문화사회에서 필요한 진정한 다문화동화란 무엇일까. 애초에 다문화동화가 생겨난 것도, 이주민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또한 다문화란 용어의 의미를 원론적으로 생각해도, 다문화동화란 문화충돌과 문화갈등을 하는 이주민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사회로 이주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 문화, 가치관에 대한 소개와 이해일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다문화동화를 접근하면, 현재의 다문화동화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하고 이에 세계 전래동화, 특히, 아시아 전래동화를 다문화동화로서 새롭게 접근해 보고자 한다. 즉 우리에게 이미 다문화동화가 존재하고 있었고, 그것이 세계 전래동화였다는 관점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다. 직접 가보지 못한 세계의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을 소개하는 세계 전래동화가 사실은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의 문화와 가치관을 소개하는 일종의 다문화동화였던 것이고, 이러한 다문화동화에 대한 개념의 재정립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방향이자 목표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세계 전래동화가 좋은 다문화동화라는 전제 아래, 현재 출판된 대표적인 세계 전래동화집의 현황을 살펴본 후, 한국의 다문화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아시아 전래동화집의 다문화동화로서의 방향과 가치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세계 전래동화집에서 아시아 전래동화집으로 지역을 한정하는 것은 서구의 전래동화는 충분히 출판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또한 아시아계 이주민 중심의 한국 다문화사회를 고려해보면, 아시아 전래동화집이 다문화동화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 연구자가 약 3년 동안 진행한 이주민 구술설화를 바탕으로 아시아 전래동화집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이주민 구술설화란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이 직접 구술한 그들 모국의 설화를 의미하는데, 전래동화가 설화의 재탄생이란 의미에서 이주민 구술설화는 다문화동화로서의 아시아 전래동화

의 방향을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한국에서 출판되고 있는 세계 전래동화집의 출판 현황을 분석한 후 수집된 이주민 구술설화를 토대로 다문화동화로서의 아시아 전래동화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고자 한다.²⁾

II. 한국에서 출판된 세계 전래동화집의 출판 현황과 문제점

한국에는 설화를 바탕으로 한 전래동화집이 크게 두 종류로 분류되어 출판되어왔다. 그것은 한국 전래동화집과 세계 전래동화집이고, 다문화동화로서의 아시아 전래동화집을 기획하기 위하여 우선 현재 한국에서 출판되고 있는 대표 세계전래동화집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지면의 한계와 여러 이유로 인해 한국톨스토이, 교원, 비룡소의 출판사를 중심으로 세계 전래동화집 국가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³⁾

2) 이 글의 주요한 연구 자료인 이주민 구술설화는 본 연구자가 전임연구원으로서 참여한 연구사업의 내용을 토대로 하였음을 밝힌다. 참여한 과제명은 <다문화시대 한국학을 위한 이주민 설화구술자료 DB 구축>이며 2016년 9월 1일부터 시작되어 2019년 8월 30일에 종료되었다. 참여 인원은 총 17명으로, 3명의 전임연구원을 중심으로 전국 대상의 이주민 설화 조사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28개국의 134명의 이주민을 통해 설화를 포함한 1493편의 구술담화 자료가 확보되었다.

3) 세계의 옛이야기를 동화책으로 출판한 출판사는 목록 표에서 제시한 출판사 외에도 보림 출판사의 '지구촌 다문화그림책 이야기', 예림 출판사의 '다문화 이웃이 직접 들려주는 다문화 전래동화' 등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3개의 출판사를 대표로 선정하였다. '한국 톨스토이, 교원, 비룡소'를 본 연구에서 대표 출판사로서 선정한 이유는 우선, 다른 출판사에 비해 비교적 다양한 아시아 국가의 설화를 수록한 출판사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대중적인 브랜드 파워가 있는 출판사가 어린이들에게 영향력을 강하게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대중성도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 그래서 239682명의 학부모가 활동하는 네이버 카페 '우리 아이 책 카페(<http://cafe.naver.com/nowbook>)'를 통해 비교적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세계 전래동화집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지면의 한계와 무엇보다 다문화동화로서의 아시아 전래동화집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기에 모든 출판사를 아우르지 않고 3개의 출판사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후후 연구에서는 단행본과 함께 출판사를 확대하여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출판사	전래동화집의 국가별 구성
한국톨스토이 (대상연령: 5-10세)	<p><한바퀴 옛이야기>라는 이름으로, 세계 50개국의 이야기를 각 2편씩 총 100편을 실고 있다.</p> <p>국가목록: 영국, 말레이시아, 인도, 필리핀, 중국, 파키스탄, 러시아, 오스트리아, 베트남, 이란, 이집트, 캐나다, 브라질, 타이, 프랑스, 핀란드, 티베트, 인도네시아,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우크라이나, 노르웨이, 독일, 몽골, 일본, 이라크, 멕시코, 이스라엘, 터키, 칠레,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모로코, 카메룬, 스위스 등</p>
교원 (대상연령: 유아 3세-초등 6학년)	<p><호야·토야의 세계 옛이야기>라는 이름으로 세계 50개 나라의 옛이야기를 각 한 편씩, 아시아,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유럽, 아프리카로 권역을 나누어 출판하였다.</p> <p>국가목록: 중국, 일본, 몽골, 인도, 타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이라크, 이란, 터키, 미국, 멕시코, 파라과이, 브라질, 칠레,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체코, 크로아티아, 우크라이나, 이집트, 나이지리아, 모로코,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와질란드 등</p>
비룡소 (대상연령: 4-13세)	<p>-<세계의 옛이야기>라는 이름으로 총 48권을 출판하였다.</p> <p>-국가목록: 일본,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미얀마, 독일, 그리스, 스위스, 파푸아뉴기니, 노르웨이 등</p>

<표 1> 국가별 세계 전래동화집 현황

이외에도 여러 출판사를 통해 아시아 전래동화를 포함한 세계 전래동화가 꾸준히 출판되고 있다. 시공주니어 출판사에서 ‘네버랜드 옛이야기 그림책-세계 옛이야기’로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의 세계 전래동화집을 출판하였고, 길벗 어린이 출판사에서도 ‘길벗 어린이 옛이야기’ 시리즈에서 중국 소수민족의 전래동화를 출판하는 등 아시아 국가의 전래동화를 소개하고 있다. 또 상상박물관 출판사에서 중국과 일본 등의 몇몇 몇 아시아를 포함한 세계 전래동화집을 출판하고 있었다.

이처럼 전보다 다양한 국가로 확대가 되어, 아시아 국가의 전래동화가 출판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점은 한국의 다문화사회

를 고려한다면 무척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긍정적인 변화와 함께 개선해야 할 몇 가지 특성도 확인할 수 있다.

1. 유럽 중심의 세계 전래동화집

세계 전래동화하면 쉽게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다. ‘백설공주, 인어공주, 신데렐라’ 등으로, 주로 서구의 전래동화가 세계 전래동화를 대표한다. 대중이 생각하는 세계 전래동화는 2021년 현재에도 금발의 주인공이 등장하는 유럽의 세계 전래동화이고, 이러한 상황은 어제와 오늘의 일이 아니다. 꽤 오랜 시간을 유럽을 비롯한 서구의 전래동화가 대표성을 가지며 한국의 아동들에게 사랑을 받아 왔다.

유럽 중심의 세계 전래동화가 오랜 세월 한국 아동들의 가치관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은 당대의 사회 문화와 깊은 관계가 있다. 7-80년대 한국에서 출판된 세계 전래동화집이 유럽을 비롯한 서구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은 무엇보다 경제적인 도약을 꿈꾼 한국 사회와 깊은 영향이 있었다. 선진국이었던 서구의 문명을 수용하고자 했던 한국 사회의 분위기가 영화 드라마뿐 아니라 어린이들의 세계 전래동화집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유럽 중심의 세계 전래동화집이 굳건하게 자리 잡을 수 있게 만들었다. 그래서 유럽 중심의 세계 전래동화를 경험한 아동들은 유럽 나아가 서구에 대하여 친근함을 넘어 동경을 경험하며 무의식적으로 동화책 속 배경이 되는 국가와 사람들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형성하며 성장하였다.

2021년인 현재, 단일민족을 강조하던 한국은 다문화사회라는 커다란 변화를 겪으며 세계 전래동화집에도 이전과 다른 변화의 바람을 경험하고 있다. 금발의 공주님이 등장하는 서구 중심의 전래동화집에서 한국 다문화사회의 주축이 되는 아시아의 전래동화가 출판되기 시작한 것이다. 모두가 아는 바처럼, 한국의 다문화사회의 주축은 아시아인들이다. 중국, 베트남, 일본, 몽골, 카자흐스탄, 필리핀 등의 아시아 국적의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를 다문화사회로 변화시켰고, 이러한 사회 현상을 반영하듯 최근에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다국적의 전래동화가 출판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를 비롯한 다국적의 세계 전래동화집은 여전히 다수보다는 소수에 속하고 유럽 중심의 세계 전래동화집이 21세기에든 순항 중이다. 세계 전래동화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작품은 여전히 금발의 신데렐라이지 베트남의 땀과 감이 아니다.⁴⁾ 세월이 흘러 많은 것이 변화했지만, 여전히 한국의 어린이들은 금발의 공주가 나오는 세계 전래동화에 익숙하다. 물리적으로 혹은 역사적으로 서구보다 훨씬 가까운 우리 주변의 아시아의 전래동화는 여전히 낯선 이야기이다. 아시아 전래동화는 여전히 중심보다는 주변부의 이야기에 속하여 독자적인 목소리를 한국의 어린이들에게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2. 답습되는 아시아 전래동화

한국톨스토이, 교원, 비룡소 등의 여러 출판사를 통해 최근에 아시아의 설화를 바탕으로 한 전래동화가 출판되고 있다. 그러나 유럽 중심의 세계 전래동화에 비하면 아시아 전래동화는 매우 적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 더 큰 문제는 출판된 작품이 다양하지 못하고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즉 선정된 아시아 전래동화가 출판사별로 중복되고 답습되는 경향이 강한데, 대표 아시아 국가인 중국과 일본의 작품 목록을 살펴보면 다양하지 못한 아시아 전래동화의 출판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	작품명	출판사
중국	마라의 신기한 붓	한국톨스토이
	마라의 신기한 붓	한국 헤밍웨이

4) 한국의 <콩쥐 팥쥐>는 서구의 <신데렐라>와 함께 베트남의 <땀과 감>, 중국의 <섭한>이 있다.

	신기한 붓	사계절
	신기한 붓	단비
	마량의 신기한 붓	상상박물관
	금비녀와 쌍찬	교원
	신기한 비단	시공주니어
	늑대 할머니	길벗 어린이
	청룡과 흑룡	길벗어린이
	호리병박에서 나온 아가씨	한국톨스토이
일본	복숭아 동자 모모타로	한국톨스토이
	복숭아동자	비룡소
	복숭아 동자 모모타로	상상박물관
	복숭아 동자 모모타로	한국 헤르만 헤세
	꽃 피우는 할아버지	시공주니어
	복숭아 부부	교원
	요술을 부리는 주걱	한국 헤르만 헤세
	두루미 아내	비룡소
	혀 잘린 참새	비룡소
	신기한 부적 세 장	비룡소
	주먹밥이 대굴대굴	비룡소

<표 2> 중국과 일본의 전래동화 출판 현황

한국에 출판된 아시아 전래동화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작품이 소개되는 국가는 역사적으로 친연성을 가진 중국과 일본이다. 그래서 중국과 일본의 전래동화 출판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은 <마량의 신기한 붓>, 일본은 <복숭아 동자 모모타로>가 여러 출판사에서 반복적으로 출판되고 있었다. 마치 유럽의 전래동화, <신데렐라>와 <백설공주>, <인어공주>가 대표 작품으로써 여러 출판사에서 중복 출판되는 것처럼 중국의 <마량의 신기한 붓>과 일본의 <복숭아 동자 모모타로>가 여러 출판사에서 반복하여 재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시아 전래동화가 한국에 소개되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라는 점과 다문화동화로서의 아시아

전래동화의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동일 작품의 답습보다 다양한 작품의 소개가 중요하다. 아시아 국가들이 가진 다양한 가치관과 문화를 소개하고 통합과 화합을 추구하는 다문화동화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이 전제된 출판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양한 작품의 발굴을 통한 출판이 이루어질 때 다문화동화로서의 아시아 전래동화집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도 연결될 것이다.

따라서 답습되는 형태가 아닌 각국을 대표하는 아시아의 다양한 전래동화를 출판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전래동화의 중심 서사인 각국의 설화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원재료라 할 수 있는 아시아의 다양한 설화 자료의 수집과 탐색은 아시아 전래동화 출판의 핵심 조건으로, 출발점에 있는 이 시점에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 하겠다. 게다가 다양한 국적의 아시아 이주민이 함께 공존하는 현재의 한국사회를 고려해보면, 아시아 설화를 수집하고 탐색하기에 가장 최적의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다. 과거에는 번역의 문제와 현실적인 제반 상황 때문에 주변 아시아의 전래동화를 다양하게 출판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기존에 출판된 작품을 답습하여 재출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현재는 아시아 전래동화를 적극적으로 기획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이 이미 충분히 구축되어 있다. 한국에서 살아가는 다국적의 재원들, 즉 이주민들을 통해 아직 발굴하지 못한 아시아의 보석과 같은 설화들을 한국어로 쉽게 수집할 수 있고, 이외에 SNS와 유튜브를 통해서도 아시아 각국의 다양한 설화를 수집할 수 있기에 전래동화의 기반이 될 원형 서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야만 한다. 즉 세계화 혹은 다문화사회와 같은 특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과거와 달리 다양성과 흥미성을 두루 갖춘 다양한 서사의 아시아 전래동화가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기획될 수 있을 것이다.

Ⅲ. 다문화동화로서의 아시아 전래동화집

1. 이주민 설화를 활용한 아시아 전래동화집의 기획 방향

이주민 구술설화란 현재 한국에서 살아가는 결혼이주여성, 유학생, 이주노동자와 같은 이주민이 직접 구술한 모국의 설화를 의미한다. 본 연구자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의 다국적 이주민을 직접 만나, 이주민 모국의 설화를 조사하는 연구 사업을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의 다문화사회를 반영하듯 중국, 베트남, 일본의 이주민을 가장 많이 만났고, 그만큼 조사된 설화 채록수도 세 국가가 가장 많다. 이외에도, 몽골, 카자흐스탄, 필리핀, 캄보디아, 러시아, 사우디, 타지키스탄, 파라과이 등의 다국적의 설화를 채록하였고, 이 중 아시아 전래동화로서의 가능성을 가진 중국 설화목록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중국			
번호	중국 설화 목록	특징	
1	사람을 만든 여와	신화	전국
2	바다를 메운 정위새	전설	전국
3	태양을 쬔 화부(후예)	신화	전국
4	염제와 황제의 다툼	신화	전국
5	물을 다스린 대호	신화	전국
6	노하여 산에 부딪힌 신	신화	전국
7	하늘을 메운 여와	신화	전국
8	견우와 직녀	민담	전국
9	영웅 나영 씨리즈 1-5	전설	지역
10	실패한 영웅	전설	지역
11	봉화산 유래담	전설	지역
12	선초동 유래담	전설	전국
13	낙파 유래담	전설	지역
14	재린 이야기	전설	전국

15	수호신 온태보	전설	전국
16	양산백과 축영대	민담	전국
17	두견새 유래담	전설	전국
18	서유기 시리즈	민담	전국
19	만리장성을 무너뜨린 맹강녀	전설	전국
20	여자를 믿지 못한 진시황제	전설	전국
21	우랑직녀	민담	전국
22	항아리를 깨 사마광	전설	전국
23	종씨의 유래담	전설	전국
24	하늘로 날아간 항아	민담	전국
25	우렁각시	민담	전국
26	하늘을 연 반고	신화	전국
27	백두산 천지 괴물	전설	전국
28	사위를 찾는 쥐	민담	전국
29	새의 말을 듣는 사냥꾼 헤리포	민담	지역
30	욕심이 많은 바이를 골탕 먹이는 아판티 1.2.3	민담	전국

<표 3> 중국 설화 목록(일부)⁵⁾

중국은 다민족이 살아가는 국가이다. 한족, 조선족 외에도 다양한 소수민족이 살아가는 중국에는 그만큼 다양하고 방대한 설화들이 전승되고 있다. <표 3>에 제시한 약 35여 편의 중국 설화는 중국 이주민들이 구술한 설화 목록으로, 여러 중국 이주민을 통해 수집된 자료 목록이다. 설화 조사에 응한 대부분의 이주민들은 한국 연구자들에게 자신의 모국을 대표하는 설화를 구술하고자 하였고, 그러다 보니 중복되어 조사된 설화가 다수 있었다. 또한 학교에서 배운 대표 신화, 예컨대, 한국의 <단군신화>처럼 공교육을 통해 학습한 설화를 구술하기도 했다. 물론, 어릴 적에 자신의 고향에서만 전승되던 지역 설화를 구술하는 이주민도 있었지

5) 목록을 제시하는 것은 아시아 전래동화로 가능한 설화가 무궁무진하다는 점을 제시하기 위함이며, 이 표의 설화명은 이주민이 구술한 자료의 제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실제 db에서 제공하는 설화명은 핵심 어휘를 바탕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만, 일반적으로 전국에서 전승되고 있는 광포 설화가 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이주민 구술설화의 채록 현황은 다문화동화로서의 아시아 전래동화를 기획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된다. 어떤 설화를 선정하여 각국을 대표하는 전래동화로 재화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그렇기에 이주민 구술 설화의 채록 현황은 유의미한 자료이다. 다수의 이주민이 중복하여 구술한 설화는 각국을 대표하는 정전문학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므로 아시아 전래동화 출판에서 작품 선정의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즉 다수의 이주민을 통해 조사된 자료에서 각국의 대표 설화를 선정할 수 있고, 이것은 아시아 전래동화집에서 작품을 선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단지, 흥미로운 이야기 혹은 교훈적인 이야기라는 임의적 기호에 따른 작품 선정보다 정전문학처럼 객관적이고 타당한 작품 선정의 기준 아래 아시아 전래동화가 기획되고 출판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다문화동화로서의 아시아 전래동화의 기획 방향에서 중요한 점은 전달하고자 하는 교훈성보다 각국이 가진 문화의 다양성을 서사화한 작품 선정이다.

다문화동화로서의 아시아 전래동화는 다양한 각국 문화의 특성이 서사화된 작품이 선정되어야 한다. 물론, 아시아 전래동화집도 기존의 세계 전래동화처럼 어린이들에게 건강한 가치관과 세계관 형성이 중요한 기획 목표의 하나이겠지만, 가난과 후진국이라는 아시아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지양하는 다문화동화 차원에서,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는 ‘문화 중심’의 기획이 필요하다. 그래서 문화 중심의 아시아 전래동화집을 위해 상호문화교육을 위한 설화의 선정 기준과 내용을 적극적으로 차용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 가치문화: 각 민족의 세계관, 가치관 등을 의미하며 효행담, 지혜담 등이 이에 속한다.

▷ 자연문화: 각국의 생태환경 즉 동식물 관련 설화로 동물, 산, 바다 등과 관련된 설화로, 지명 전설 등이 이에 속한다.

▷ 생활문화: 각국의 풍습과 생활을 의미하며, 명절, 민속(악기, 노래 등)과 관련한

설화 등이 이에 속한다.

▷ 역사문화: 민족을 대표하는 영웅과 역사적 사건을 의미하며, 영웅설화와 민족 신화 등이 이에 속한다(오정미, 2020: 1289).

좋은 문학작품일수록 주제를 정면으로 말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이주민과 정주민의 화합과 통합을 정면으로 말하고 있는 기존의 다문화동화는 매력적이지 않으며, 독자가 어린이일지라도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화합과 통합을 정면으로 말하는 대신 아시아의 보편 및 특수한 가치문화, 자연문화, 생활문화, 역사문화의 소개를 통해 아시아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게 하는 것, 그것이 좋은 다문화동화일 것이다. 따라서 보편적 문화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와 같다는 공감을, 특수한 문화의 이야기를 통해 다름을 경험시키는 아시아 전래동화가 화합과 통합을 추구하는 다문화동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문화 중심의 아시아 전래동화집의 소개

가치문화, 자연문화, 생활문화, 역사문화처럼 문화 중심의 아시아 전래동화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아시아 전래동화집의 기획을 위해 문화 중심으로 선정한 중국, 몽골 설화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⁶⁾ 우선, 중국 설화 <니엔 괴물과 설날 풍속 유래>이다. 본 연구자가 검토한바, 현재까지 한국에서 동화책으로 출판된 적 없는 중국의 설화 <니엔 괴물과 설날 풍속 유래>는 중국의 춘절에 관한 전설이다. 한국에서는 설날이라고 하는 중국의 춘절이 어떻게 최초로 유래되기 시작한 것인지, 춘절에 하는 다양한 풍습까지 흥미롭게 서사화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6)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이주민 구술 설화 자료를 현재 db로 공개하고 있다. 다만, 현재(2021년 5월) 제공되는 db가 체계적이지 못한 점이 발견되어 보완 작업 중이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자료를 검토할 수 있으므로, 자료가 필요한 연구자들을 위해 db 자료 주소를 안내한다.

(<http://waks.aks.ac.kr/rsh/?rshID=AKS-2016-KFR-1230004>)

마을로 내려와 사람을 잡아먹고 또 돌아가서 365일 동안 잠을 자기를 되풀이하는 니엔(年)이라는 괴물이 있었다. 니엔이 마을로 내려오는 날이 가까워지면 마을 사람들과 이바오는 모두 니엔을 피해 도망을 갔다. 그때 흰 수염이 땅까지 오는 노인이 나타나 이바오에게 잠을 재워 달라고 말했다. 아무도 노인에게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이바오는 노인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 자신의 음식을 나눠주고는 피난을 가야 한다고 말해주었다. 그러자 노인은 자기와 함께 집에 있으면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노인은 보파리에서 길쭉하고 빨간 종이 두 장을 꺼내 이바오에게 대문에 붙이게 했고 날이 어두워지자 빨간색 초 두 개를 켜게 했다. 그리고 날이 추우니 대나무로 불을 피우라고 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니엔이 도망가버렸다. 그 후부터 사람들은 365일마다 새날이 시작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어 새해가 생겨나게 됐고 서로 그날을 축하하며 안부를 묻게 됐다. 그리고 그때부터 문 앞에 빨간색 글을 써서 붙이고 빨간 초 불도 켜두는 풍습이 생겨났다.⁷⁾

아동을 대상으로 한 동화책으로서 재화가 가능한 설화인가부터 살펴보면, 설화 <니엔 괴물과 설날 풍속 유래>는 ‘니엔(年)’이란 상상 속의 괴물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흥미로움과 함께 이바오라는 소년의 선행이 마을 사람들을 구했다는 점에서 교훈을 전달하므로 흥미와 교훈적인 면에서 동화책으로서의 재화 가능성이 충분한 설화라 판단된다.

문화 중심의 아시아 전래동화 측면에서도 중국의 춘절을 소개하는 설화 <니엔 괴물과 설날 풍속 유래>는 다문화 동화로서의 출판 자격이 충분하다. 춘절은 중국의 큰 명절로, 중국인들은 춘절에 만나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설화에서 보여주는 세 가지 풍습을 현재까지 계승하고 있다. 빨간색 종이, 빨간색 초에 대한 풍습은 거의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으며, 현대화된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대나무로 불을 지피는 행위만 폭죽을 터트리는 문화로 대체되고 있다. 연구 참여자 류씨의 말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7) 위 이야기는 본 연구자가 조사팀과 함께 2017년 5월 15일에 직접 수집 채록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연구 참여자 류씨는 중국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 후 경기도에서 거주 중인 결혼이주여성이다. 현재 중국어 사설 학원의 선생님이로 활동 중이다.

“365일마다 그 뭐지? 니엔만 오는 거예요. 그 다음날은 그냥 평범한 날인데 니엔을 쫓고 나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서 축하하잖아요. 그래서 이날로 새로운 날이라구 생각하고 그러구 또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니엔을 쫓는 방법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후부터 365일마다 이 사람들은 문 앞에다가 중국 사람들은 빨간색 그 글을 써서 붙이고 그다음에 폭죽을 터뜨려요. 소리가 나잖아요. 그담에 설날에 밤에 보시면 빨간 초롱에 불을 켜놔요.”

대나무에 불을 지핀 것은 대나무가 타면서 나는 ‘탁탁’ 소리 때문으로, 괴물 니엔은 빨간 종이와 초 그리고 대나무 소리를 무서워하여 결국 도망을 갔고, 그로 인해 니엔 괴물을 물리쳤다는 춘절 유래담이 설화 <니엔 괴물과 설날 풍속 유래>의 주요 서사이다. 현대에는 주거환경의 변화로 대나무를 지필 수 없어 그 소리를 대체한 폭죽을 터트리고 있다. 즉 괴물 ‘니엔’을 없애고자, 현대에도 중국인들은 빨간 종이와 초, 그리고 폭죽을 터트리는 풍습을 춘절에 이어오고 있는데, 이러한 설화 속 흥미로운 문화의 소개는 선입견과 편견을 지양하고자 한 다문화동화로서의 가치를 실현한다.

또한 설화 <니엔 괴물과 설날 풍속 유래>를 통해 앞서 언급한 가치 문화, 자연문화, 생활문화, 역사문화가 다문화동화로서의 아시아 전래동화를 위한 작품 선정 기준이자 동시에 내용이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노인에게 선행을 베푸는 이바오로 인해 모두가 복을 받게 되었다는 세계 보편의 가치문화와 함께 중국 춘절에 빨간 종이와 빨간 초, 타는 소리가 요란한 대나무(폭죽)가 존재한다는 중국의 생활문화는 다문화동화로서의 아시아 전래동화로 손색이 없다. 아동에게 교훈과 흥미를 주면서도 아시아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지게 하는 전래동화가 다문화동화로서의 전래동화일 것이며 설화를 토대로 한 아시아의 전래동화는 다문화동화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발현할 것이다.

다음으로 몽골의 설화를 소개하고자 한다. 사실, 한국과 역사 및 문화적으로 가장 친연성이 높은 중국의 경우도 무궁무진한 설화들이 아시아 전래동화로서 재화되지 못하는 형편인데 주변 아시아의 경우는 더욱 그

상황이 좋지 않다. 몽골도 역사 및 문화적으로 중국만큼 친연성이 높은 국가이지만 다른 아시아 국가들처럼 다양한 전래동화가 소개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는 재한몽골학교가 있고, 이러한 몽골의 특성은 다문화동화로서의 아시아 전래동화집의 기획에서 몽골을 더욱 특별하게 만든다.⁸⁾ 다문화동화란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아동뿐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므로, 한국에 몽골재한학교가 가진 의미는 다문화동화로서의 전래동화 기획에 당위성을 부여한다.

몽골의 설화가 전래동화로 소개된 것은 몇 편 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한국톨스토이에서 출판한「용감한 울란바토르」,「마두금 이야기」, 교원에서 출판한「수호와 흰말」,「바위가 된 젊은이」, 정인 출판사의 색동다리 다문화 시리즈에서「지혜로운 사람」,「하얀 아기낙타」가 출판된 상황이다. 아직도 발굴하여 기획할 몽골의 전래동화가 무궁무진하고 이러한 점에서 몽골의 대표 설화 <낙타의 뿔이 없어진 유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옛날에 사슴은 뿔이 없고 낙타에게 뿔이 있었는데, 어느 날 사슴이 낙타의 뿔을 부러워하며 뿔을 빌려 갔다. 하지만 사슴은 약속을 어기고 뿔을 돌려주지 않았다. 그 후 사슴의 뿔은 자기 것이 아니라서 1년에 한 번씩 떨어지고, 낙타는 사슴이 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물을 먹을 때마다 고개를 한 번씩 들게 되었다.⁹⁾

설화 조사에서 총 6편이 조사될 만큼 <낙타의 뿔이 없어진 유래>는 몽골에서 대중적인 광포 설화이다. 매우 짧은 서사이지만, 중국의 <니엔 괴물과 설날 풍속 유래>처럼 동화로서의 재화 가치가 충분한 설화이며

8) 재한 몽골학교는 몽골 근로자의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배움의 기회를 주고자 1999년 12월에 서울외국인근로자선교회의 도움으로 설립되었고, 2005년 2월에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외국인 학교로, 몽골교육부로부터 재외 몽골학교로 최초로 정식 인가를 받았다. 현재 광진구에 학교가 있으며, 초중고 과정이 있다. (<http://www.mongolschool.org>)

9) 위 이야기는 본 연구자가 조사тип과 함께 2018년 2월 13일에 직접 수집 채록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연구참여자 밀씨는 몽골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 후 한국에서 정착하여 경기도에서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이다. 현재 다양한 몽골 이주민들과 문화 관련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있다.

동시에 다문화동화로서의 영향력도 기대되는 설화이다. 설화의 서사를 통해 약속과 신의라는 세계 보편의 가치문화뿐 아니라 낙타라는 주요 화소를 통해 몽골의 사막과 같은 특수한 자연문화를 아동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문화동화로서의 위상을 가지기 때문이다. 물론, 이외에도 몽골의 대표 신화 <해를 쏜 메르겐>을 비롯하여 <낙타가 열두 띠에 들지 못하는 이유>, <9일간의 추위와 갈라지 소의 발>, <늑대의 후예>, <징기스칸 어머니의 지혜> 등, 몽골의 광활한 자연과 역사 그리고 지혜를 알 수 있는 소개되지 않은 몽골의 설화를 통해 몽골의 전래동화를 적극적으로 기획할 필요가 있겠다.

이처럼 문화 중심의 작품 선정은 기존의 전래동화집과의 차별점이며 다문화동화로서의 아시아 전래동화집을 위한 가장 중요한 특성이다. 이주민을 통한 각국의 설화 조사뿐 아니라 문헌 조사, sns 유튜브와 같은 다방면의 통로를 통해 적극적으로 아시아의 설화를 발굴하여 다문화동화로서의 아시아 전래동화집을 기획하는 것은 다문화교육과 상호문화교육 차원에서도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IV. 나오며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아동 대상의 다문화동화가 현재 비판의 중심에 있다. 아시아계 이주민과 다문화가정의 갈등을 주요 스토리로 한 다문화동화가 오히려 다문화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조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문화동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 세계 전래동화를 다문화동화로 보고, 아시아 전래동화집의 방향에 대하여 모색하였다. 문화충돌과 문화갈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이주민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사회로 이주한 다양한 사람들의 모국 문화와 가치관에 대한 소개와 이해라는 차원에서 아시아 전래동화집의 방향을 모색한 것이다. 특히, 이 글에서 다

문화동화로서 아시아 전래동화집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이유는 한국이 아사아계 이주민 중심의 다문화사회이기 때문이다.

2장에서는 다문화동화로서의 아시아 전래동화집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세계 전래동화집의 현황을 살폈다. 그 결과 한국에서 출판되는 세계 전래동화집은 백설공주, 신데렐라, 인어공주와 같은 유럽 나아가 서구의 전래동화가 대부분이고, 최근에 아시아를 비롯한 다양한 국가의 전래동화가 출판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유럽 중심의 세계 전래동화가 주류이고, 출판된 아시아의 전래동화는 중국의 ‘마랑의 신기한 붓’, 일본의 ‘복숭아 동자’처럼 동일 작품이 답습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세계 전래동화집의 현황을 바탕으로, 3장에서는 아시아 전래동화집의 구체적 기획 방향을 제시하였다. 3년 동안 진행한 이주민 설화를 바탕으로 제시한 아시아 전래동화집의 기획 방향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먼저 흥미롭거나 교훈적인 이야기라는 임의적 기호에 따른 작품 선정보다 각국의 정전문학처럼 객관적이고 타당한 작품 선정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다수의 이주민이 중복하여 구술한 설화는 각국을 대표하는 정전문학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기에 작품 선정의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아시아 전래동화집의 또 다른 기획 방향에는 각국이가진 문화의 다양성을 서사화한 작품 선정이다. 일반적인 전래동화집에서는 흥미와 교훈성이 작품 선정의 기준이지만 다문화동화로서의 아시아 전래동화에서는 문화 중심의 작품 선정이 필요하다. 이에 상호문화교육을 위한 설화의 선정 기준과 내용인 ‘가치문화 · 자연문화 · 생활문화 · 역사문화’를 아시아 전래동화집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문화 중심의 아시아 전래동화가 무엇인가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정전문학이며 가치문화 · 자연문화 · 생활문화 · 역사문화의 내용을 포함한 중국 설화 <니엔 괴물과 설날 풍속 유래>와 몽골 설화 <낙타의 뿔이 없어진 유래>를 대표 설화로 제시하였다.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 중심의 전래동화집은 어린이들에게 긍정적인 다문화교육 및 상호문화교육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통합과 소통이라는 다문화동화로서의 본연의 가치를 충실히 이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세계 전래동화집, 아시아 전래동화집, 다문화동화, 이주민, 설화, 다문화교육, 상호문화교육

참고문헌

1. 논문 및 단행본

- 고경민, 「아시아 전래동화의 비교를 통한 한국 문화교육-다문화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동화와 번역』 24, 동화와 번역연구소, 2012, 15-38.
- 권혁래, 「다문화동화집의 출간과 활용 연구: 이주민들이 안고 들어온 글로벌 문학에 대해」, 『동화와 번역』 35, 동화와 번역연구소, 2018, 37-71.
- _____, 「아시아동화집 출판과 콘텐츠활용 연구-아시아인의 상호이해와 교감을 위한 성찰-」, 『동아시아고대학』 52집, 동아시아고대학회, 2018, 135-162.
- _____, 「다문화동화로 출간된 베트남 옛이야기 연구」, 『우리문학연구』 62, 우리문학회, 2019, 109-140.
- 김부경 · 원진숙, 「다문화동화의 내용 요소 분석-인물, 갈등의 양상, 해결 방식, 다수자의 편견을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8-2, 한국다문화교육학회, 69-96.
- 류찬열, 「다문화동화의 현황과 전망」, 『어문논집』 40, 중앙어문학회, 2009, 273-293.
- 오정미, 「상호문화교육을 위한 아시아 설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이해: 베트남 설화를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6-5,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20, 1281-1298.
- 이혜미, 「다문화동화에 나타난 상호 이해의 양상」, 『글로벌교육연구』 3-2, 글로벌교육연구학회, 2011, 75-106.
- 함형준 · 김정원,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한 세계 전래동화 활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다문화교육연구』 11, 한국다문화교육학회, 2018, 109-132.

국문요약

다문화동화로서의 아시아 전래동화집의 방향 연구

오 정 미

이 연구는 아시아계 이주민이 중심인 한국의 다문화사회를 반영하여 다문화동화로서의 아시아 전래동화집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기존의 다문화동화가 아시아계 이주민과 다문화가정의 갈등을 주요 스토리로 하였다면, 이 글에서는 우리 사회로 이주한 다양한 사람들의 모국 문화, 가치관에 대한 소개와 이해가 진정한 다문화동화라 규정하며 다문화동화로서의 아시아 전래동화집의 개발과 구체적 기획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현재 출판되고 있는 세계 전래동화집의 현황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아시아 전래동화의 개발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폭넓은 자료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시아 전래동화는 양적인 문제뿐 아니라 제한된 작품과 동일한 작품의 답습이라는 질적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아시아 전래동화집의 개발을 위해 약 3년 동안 진행한 이주민 구술 설화 조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기획 방향을 모색하였다.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이 전래동화의 초석이 될 아시아의 설화의수집이며, 이를 통해 작품 선정의 기준을 마련하고 작품의 다양화를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흥미나 교훈 중심의 전래동화가 아닌 문화 중심의 아시아 전래동화집을 제안하였다. ‘가치문화 · 자연문화 · 생활문화 · 역사문화’와 같은 문화 중심의 아시아 전래동화집의 방향을 제시한 후 이 연구에서 중국 설화 <니엔 괴물과 설날 풍속 유래>와 몽골 설화 <낙타의 뿔이 없어진

유래>를 통해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였다.

문화 중심의 아시아 전래동화집은 통합과 화합이라는 주제를 전면으로 내세우는 다문화동화보다 매력적이고 흥미로운 서사로 아동들에게 진정한 다문화교육과 상호문화교육을 실천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Direction of Collections of Classic Asian Fairy Tales as Multicultural Children's Stories

Oh, Jungmi
(Inha University)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a direction of the collections of classic Asian fairy tales as multicultural children's stories by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South Korea's multicultural society mostly populated by Asian immigrants. In conventional multicultural stories, a conflict between Asian immigrants and multicultural families was the main was a common theme. However, this study concludes that multicultural children's stories should introduce different culture and values based on their correct understanding and proposes specific plans to develop classic Asian fairy tale collections.

For this, this paper analyzed current collections of the world's classic fairy tales and realized that classic Asian fairy tales haven't been properly written. In particular, in addition to a quantitative issue, same and limited stories have been read to children continuously while there hasn't been a comprehensive data survey.

To develop classic Asian fairy tale collections,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a specific direction based on the research on immigrants' oral tales, which has been conducted for about 3 years. The results found the followings: First of all, it is most urgent to diversify stories by collecting Asian fairy tales. This study also proposes culture-centered fairy tales, not conventional theme or lesson-focused stories. In other words, this paper proposes value culture, nature culture, living culture, and history

culture Asian fairy tale collections. So in this study, specific cases were presented through Chinese tales “Nien Monsters and The Origin of New Year's Day customs” and Mongolian tales “The Origin of Camel's Horns”.

Culture-centered collection of traditional Asian fairy tales is more attractive and interesting than multicultural fairy tales that put the theme of unity and harmony at the forefront. Therefore, Asian traditional fairy tales will practice true multicultural education and mutual culture for children.

Key Words

Collection of the World Classic Fairy Tales, Collection of Classic Asian Fairy Tales, multicultural fairy tales, immigrants, folktale, multicultural education

오정미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 연구교수 / 구비문학

gina2004@naver.com

접수연월일: 2021년 05월 14일

심사완료일: 2021년 06월 16일

게재확정일: 2021년 06월 18일